

# 그대들이여, 《군주론》을 악마의 복음서라 했는가?

먼 곳에서 날아든 마키아벨리의 편지

표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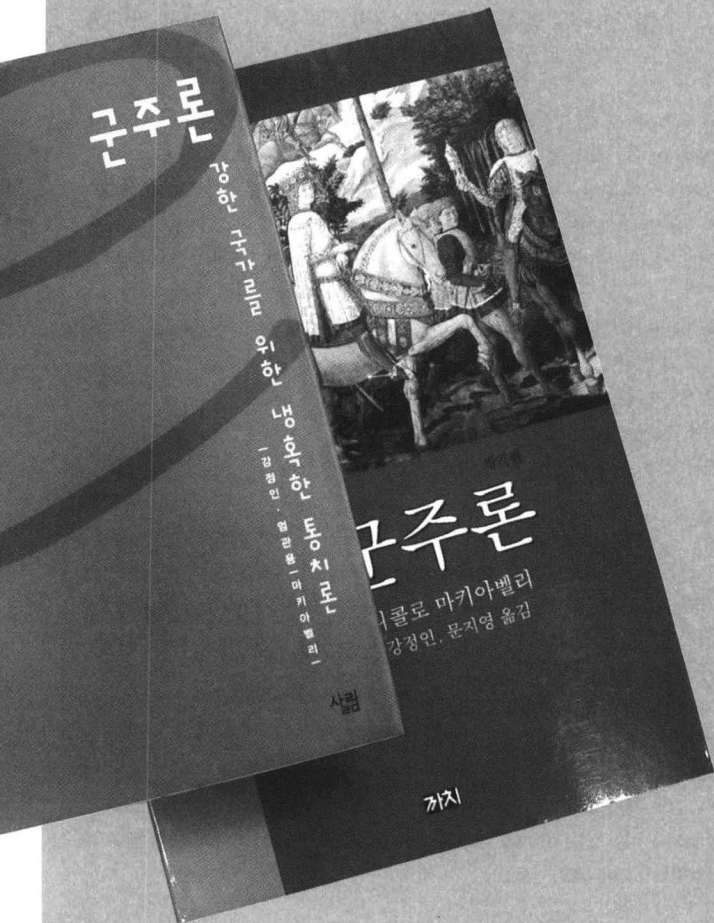
내가 쓴 《군주론》을 설명해 달라는 그대의 편지에 나는 크게 놀랐다. 그대도 알겠지만 사람들은 나를 악마의 제자라 부른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 악마의 제자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건가? 그대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나는 지금까지 늘 그러했듯 이 답장을 쓸 때도 나 자신에게 솔직하려 할 뿐, 세상의 평판에 휘둘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1498년의 일이었다. 정직한 신념을 끝까지 지킨 대가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 : 1452~1498)가 화형을 당했다. 나는 그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다. 정직은 최악의 선택이며 거짓이야말로 영광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걸 말이다. 바로 그때 나는 악마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변명하자면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살던 시대의 산물이다. 내 시대는 바로 체사레 보르지아(Cesare Borgia: 1476~1507)의 시대였다. 위선의 사도, 살인의 대가, 음모의 챔피언 보르지아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면 친형제, 친척, 친구를 가리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보르지아는 중부 이탈리아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는 따뜻하게 친구를 감싸 안으면서 친구의 등을 칼로 찌를 수도,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동안 손님이 독배를 들이키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보르지아가 하늘 아래 돌도 없는 악당으로 보인다고? 보르지아의 시대에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와 같았다. 내가 살던 시대, 아니 어쩌면 그 어느 시대에서도 야심 가득한 인물들의 삶이란 바로 그러할 터.

그대는 황금률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남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치 말라는 도덕 원칙이지. 나는 그런 말라비틀어진 황금률 대신 철칙의 원칙을 세웠다.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건 황금률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 남들이 먼저 그대에게 타격을 가하기 전에 그대가 먼저 타격을 가하라는 원칙이니 말이다. 나도 한때는 “인민의 소리가 신의 소리 vox populi vox dei”라는 라틴어 격언을 옹호했었지만, 《군주론》을 집필할 때는 생각이 달라졌다. 인민의 소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며, 군주의 소리만 울려 퍼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내 삶에 관해 그대가 알고 있다면, 내가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군주의 눈에 들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 강정인 옮김 | 까치 | 258쪽 | 값 8,000원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 강정인 · 엄관용 지음 | 살림 | 266쪽 | 값 8,900원

● 이 글을 쓴 표정훈은

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출판평론가, 번역가, 작가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직함을 번역·저술가로 통폐합하는 중이며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매문기(매문기)'로 규정한다. 저서로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 《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 《책은 나를의 운명을 지닌다》 《탐서주의자의 책》 《나의 천 년》이 있고, 역서로 《중국의 자유 전통》 《고대문명의 환경사》 《진영철의 주자강의》 《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불사의 추구》 등이 있다.

기 위해 책을 집필하여 그들을 일깨웠지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군주들은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가난과 무관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 정말 고독한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마의 제자가 가르친 것들을 필요로 할 터이니 말이다.

나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1469년에 태어났다. 유럽 여러 나라의 궁정을 돌아다니며 외교관으로 경력을 쌓았고, 1502년부터 1512년까지 10년 동안 피렌체의 종신통령 소데리니(Piero di Tommaso Soderini: 1452~1522)의 심복 구실을 했다. 나는 이런 경력을 통해 15세기 말 16세기 초 유럽 정치무대의 뒤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가졌다. 나는 소데리니를 도와 피렌체 군대를 재편하기도 하고, 소데리니의 연설문도 작성하고 정치적인 조언도 많이 했다.

하지만 1513년 소데리니는 경쟁자들에게 패했고 피렌체의 대권은 메디치 가문으로 넘어갔다. 소데리니의 심복이던 나는 피렌체 근교 시골로 추방당했다. 내 고향 피렌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새로운 통치자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다. 이후 나는 현실 정치 무대에서 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펜을 붙잡고 글을 쓰는 일밖에 없었다.

그대가 이미 읽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군주론》이야말로 이 악마의 제자가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다. 악당들의 복음서로 지목되는 《군주론》에서 나는 체사레 보르지아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다. 나는 《군주론》을 통해 로렌조 데 메디치를 비롯한 여러 통치자들에게 보르지아의 방식을 택하라고 충고했다.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군주의 통치권을 굳건히 확립하고 싶다면 말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는가? 내가 아무리 그 핵심을 이야기하든 그대가 《군주론》을 직접 읽어보는 것만 못할 것이다.

첫째,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라. 세상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단 하나의 타당한 법칙은 그대가 남들을 내리누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대의 목줄을 쥔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상 서로 돕고 협력하게 되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귀기울이지 말라. 둘째, 자기만을 드높이고 명예롭게 하라. 남을 드높여주고 명예롭게 하지 말라. 예외는 있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 드

높이고 명예롭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대의 이익을 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때이다.

셋째, 악을 행하되, 필요하다면 선을 행하는 척 꾸미기도 하라. 선하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 다만 선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일은 쓸모가 많다. 넷째, 철저하게 잔인할 것. 군주는 결코 신사답거나 짐작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정의를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부드러운 군주들이 성공하는 일은 이야기책에서나 자주 볼 수 있다. 다섯째, 기회 있을 때마다 속일 것. 그대의 경쟁자들을 억누르고 싶다면 그대는 의도적으로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야 한다. 짐승이 되기 싫다면 성공할 생각은 일찍 접는 게 좋다. 내가 군주들에게 추천한 짐승은 사자와 여우였다. 사자와 같은 흉포함에 여우와 같은 꾀를 겸비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힘은 정의보다 위대하고 속임수는 진실보다 강하다.

《군주론》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에 불타는 군인과 정치가들의 철학을 담고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에는 깊은 까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향한 나의 열망이다. 크고 작은 도시 국가와 지역들로 나누어져 늘 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상황이 지긋지긋했다. 강력한 힘을 지닌 절대 군주가 나와 군사력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런 군주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군주론》에서 제시했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꾀를 갖춘 절대 군주야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구세주와 같을지니, 나는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며 빈 들판에서 홀로 외치는 예언자의 구실을 맡았다.

나는 1513년에 《군주론》 원고를 완성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난 뒤인 1532년에야 책으로 출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출간되기가 무섭게 《군주론》은 악마의 복음서로 지목되면서 거센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급기야 1559년 교황 파울루스 4세는 《군주론》을 비롯한 나의 모든 저서를 금서 목록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자의 운명이란 늘 그러한 법. 그대의 시대에서는 나의 《군주론》이야말로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초석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니, 비록 그런 평가가 내가 뜻했던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만족한다. 그럼 이만.

- 니콜로 마키아벨리로부터 -